

차별없는 평등 주장·실천은 ‘불이법문’

불교로 읽는 古典

화담 서경덕의 <화담집(花潭集)>



김문감
충남대 한자문화연구소 연구교수

화담과 비트겐슈타인

벽에 하도(河圖)를 붙여 놓고 / 壁上糊馬圖
거처 속에서 삼년간 생각에 잠겼네 / 三年下董
태초의 혼돈으로 소급해 보면 / 遡觀混沌始
음양오행은 누가 발취했을까 / 二五誰發揮

화담(花潭) 서경덕(徐敬德, 1489~1546)의 <천기(天機)>란 시다. 하도는 낙서(洛書)와 함께 우주의 생성과 변화의 이치를 표현하고 있는 그림이다. 화담은 이 그림을 벽에 붙여 놓고 삼년간 두문불출하며 원리 탐구에 골몰하고 있었다. 그는 사물의 이름을 벽에 걸어 놓고 그 사물의 이치가 궁극될 때까지 사색에 사색을 거듭하였다. 이런 화담의 모습을 그의 제자인 초당(草堂) 허염(許謙, 1517~1580)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물건의 이치를 궁리할 적에 목록을 나열해 써 놓고 차례로 끝까지 궁리해 나갔는데 바야흐로 한 물건을 생각하다가 끝내지 못하고 번소에 가면 번소에서 오로지 계속 생각하여, 얼마 후에 이해하고 일어났으니 이렇게 힘들어 공부하기를 3년 동안 했다. 낮이면 밥 먹는 것을 잊고 밤이면 잠자는 것을 잊었으며, 혹 며칠 동안 문을 닫고 나무판 위에 단정히 앉았었는데 아무것도 깔지 않았다. 기혈이 막혀 무슨 소리를 들으면 문득 놀래곤 하였다. 이에 삼남 지방의 명산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1년 만에 돌아오니 그 후로는 몸이 충실하고 건강해서 움직임이나 쉬나 모두 편안하였다.”

어느 정도로 생각해 몰두해야 기혈이 막히는 지경에 이를까? 심신이 극도로 쇠약해져 1년은 쉼이 휴양을 해야만 회복될 수 있다면 그 몰입의 강도는 어느 정도일까?

조선에는 천재들이 많다. 매월당(梅月堂) 김시습(金時習), 교산(蛟山) 허균(許筠), 아계(鰲溪) 이산해(李山海) 등등... 손꼽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신동과 천재들이 태어났다. 이들에 비해 화담은 신동도 아니었고, 천재라는 소리도 듣지 못했다. 하지만 몰입의 정도를 따진다면 아마도 화담을 능가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화담의 이런 모습은 B.러셀이 천재의 전형이라고 했던 비트겐슈타인을 연상시킨다. 그 또한 지독한 몰입형 천재여서, 한 가지 문제에 골몰하면 정신과 육체를 극단까지 몰아넣었다. 그의 <논리·철학논고>는, 러셀에 의한다면 비트겐슈타인이 미처 버릴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을 정도로 사색을 밀어붙인 결과물이다. 비트겐슈타인은 쉬라는 러셀의 권유를 뿌리치고 노르웨이의 숲에 들어가 사색에 잠긴다.

제1차 세계대전의 전황에서도 그의 사색은 멈추지 않았다. 그리하여 철학사에 한 획을 긋는 이 책은 포로수용소에서 완성된다. 훗날 비트겐슈타인은 ‘그 때 나의 정신은 불타고 있었다’라고 회고한다. 러셀의 말대로 ‘열정적이고 심오하고 강렬하고 지배적인’ 천재의 모습을 조선의 한가로운 시골에서 발견한다는 게 얼핏 신기하다. 심신의 안정 위에서 물 흐르듯이 순리에 따르는 학자의 모습이 연상되는 동양 이기에 하는 말이다. 그리고 보면 화담과 비트겐슈타인은 여러모로 닮은 점이 많다. 동서고금이라는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어 두 사람은 만나고 있다.

화담과 비트겐슈타인 모두 특별한 스승이 있었던 게 아니다. 비트겐슈타인의 경우 비록 러셀이나 케인즈 등 여러 학자들과 교류하며 많은 지식을 얻었지만, 그의 철학은 전적으로 그 자신의 속고의 결과이다. 러셀과는 서로 다른 견해로 말미암아 멀어지기까지 한다. 비트겐슈타인이 남긴 두 권의 철학책, <논리·철학 논고>와 <철학적 탐구>는 전적으로 그의 열정과 사색의 산물이다.

화담은 가난한 하급무사의 집에서 태어나 어떤 사승관계를 맺을만한 형편이 되지 못하였다. 그는 전적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깨우쳐야만 하였다. 울곡(栗谷) 이이(李珣)는 <석담일기(石潭日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화담은 항상 말하기를, ‘나는 스승을 만나지 못했기에 공력이 어떻게 몹시 들었지만 뒷사람들은 내 말대로 하면 공력을 내같이 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자득(自得)의 즐거움은 사람들이 짐작할 수 없었다.”

울곡의 논평처럼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학문이 전적으로 주자학(朱子學)에 의지하고 있었다면, 화담의 학문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룩한 것이었다.

당연히 이들의 철학은 매우 독창적이다. 비트겐슈타인이 분석철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면, 화담은 일명 기일원론(氣一元論)이라는 새로운 성리학을 펼친다. 화담은 죽음에 임박하여, ‘성현의 말씀이 이미 경전에 있고, 선유들이 주석하였다. 여기에 내가 한 거름개 덧붙일 필요는 없다. 다만 아직 실과하지 않은 것만 지으려고 한다’ 라고 하며, <원리기(原理氣)>, <이기설(理氣說)>, <태허설(太虛說)>, <귀신사생론(鬼神生死論)> 등 네 편을 초한다.

이런 독창성은 조선보다 오히려 중국에서 더 높이 인정되어, <화담집>은 사고전서(四庫全書)에 한국인의 개인 저서로는 유일하게 등재된다. 화담철학이 복숭의 성리학자 장재(張載) 철학을 표절했다는 등의 뽀하는 그 독창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단견이다.

화담과 퇴계

“화담의 저서에 병통이 없는 것이라곤 하나도 없다. 그러나 그 인간과 학문이 어찌지 알 수 있다.”

퇴계가 화담의 저술을 평가하며 한 말이다. 도대체 화담철학의 어떤 점이 그토록 맘에 안 들기에 고결한 인품을 지녔던 퇴계가 이토록 거친 말을 쏟아내며 비난을 했을까? 어쩌면 퇴계가 병폐로 주목했던 지점이 화담철학의 요체일지도 모르겠다.

태허(太虛)는 맑고 형체가 없는데, 선천(先天)이라고 부른다. 그 크기는 밖이 없고, 그 앞은 시작이 없



화담 서경덕 영정

이론을 방편문자로 설한 철학자

달마·혜가·유마 모습 보여

“죽고 사는 이치 아니 편안”

다. 그 오는 바를 헤아릴 수도 없다. 맑고 고요히 비어 있어 기(氣)의 근원이다. (기가) 밖이 없는 말리까지 날리 퍼져 있으며 충실하게 꼭 채우고 있어 터럭 한 올이 들어갈 만한 틈새도 허용하지 않는다. 화담에 의한다면 이 우주는 기로 꽉 차 있고, 기가 모이고 흩어지면서(聚散) 만물이 생기고 사라진다. 태허와 취산작용은 불교에서 말하는 바다와 파도의 관계와도 같다. 바다는 선천(先天)의 체(體)이고 파도는 후천(後天)의 용(用)이다. 우주만물의 생성소멸 작용은 마치 바다에 의지해 파도가 일어나는 것처럼 선천의 태허에서 기가 모이고 흩어짐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원리가 작동하기에 기가 모이고 흩어질 수 있는가?

“기(氣)의 밖에는 리(理)가 없다. 리는 기의 주재(主宰)이다. 이른바 주재와 함은 밖으로부터 와서 주재하는 게 아니다. 기가 용사(用事)함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까닭을 일컫는 말이다.”

파도가 일었다가 사라지고, 꽃이 피었다가 지는 모든 일들이 용사(用事)이다. 용사는 취산작용의 다른 표현으로 이해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용사의 원리, 즉 취산의 원리가 리(理)다. 따라서 리는 우주생성 자연변화의 원리이며 법칙이다. 이런 생성변화물 리가 주재한다고 하면 리는 곧 주재자(主宰者)이며 조물주(造物主)이어야 한다. 그런데 화담이 말하는 주재의 의미는 그렇게 거창하지 않다. 화담철학에서 리의 주재성은 내재적인 이유라는 의미와 다르다. 즉 삼라만상의 생성변화는 만물 자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본래 그러하기 때문에 그럴 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갑자기 뛰어 오르고 문득 열린다. 누가 그렇게 하



화담집에는 그의 독특한 철학세계가 담겨있다.

도록 시키는가?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리의 때라고 한다.’

꽃이 피는 것은 때가 되었기 때문에 피는 것이며 지는 것도 때가 되었기 때문에 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싶지 않다고 해서 피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지기 싫다해서 지지 않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누가 시켜서 그렇게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부득 불어찌할 수 없기에, 부득이한 이유, 그제 리다.

이런 철학체계에서는 기독교적인 인격성은 물론, 스토아철학의 신의 섭리조차 용납되지 않는다. 젊은 남자가 눈이 마주칠 때 가슴이 뛰는 건 누가 시켜서도 아니며, 억지로 못하게 한다고 해서 가능한 것도 아니다. 남자가 때가 되면 사랑을 나누는 건 자연법칙이고 원리이다. 화담의 리는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부득이한 언어문자, 방편반어(方便般若)에 불과하다.

하지만 퇴계는 이런 점이 견딜 수가 없었다. 리가 다만 문자에 불과하다고? 말도 안 돼! 이게 퇴계의 생각이었다. 퇴계가 볼 때, 기를 그냥 자체의 원리에 맡겨두면 남는 아무 때나 짝을 지을 것이고, 질서는 깨질 것이다. 꽃이 때를 맞춰 피는 것은 아무 때나 피지 못하게 하는 강한 통제력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게 퇴계의 리다. 퇴계의 리는 기의 주재로써 기에 대한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한다. 기가 리의 통제에 순응하여만 우주는 질서와 조화를 지킬 수 있다. 한겨울에 꽃이 제멋대로 피면 얼어 죽는 것처럼, 기가 리의 주재를 벗어나 멋대로 작용하면 질서가 붕괴된다.

퇴계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현실인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퇴계는 생전에 세 번에 걸쳐 사화(仕禍)를 목도한다. 사화는 선비들이 화를 부르고 선비들이 화를 당한 사건이다. 선과 악이 뒤섞이고, 정의와 불의가 뒤엉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간할 수 없는 지경을 보며, 퇴계는 선과 악의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이런 현실인식은 그로 하여금 강렬한 도덕의식을 불러일으킨다. 기를 따르다 보면 때론 약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기에는 선악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순수하게 선한 리의 명령을 따르는 것만이 악에 빠지지 않고

도덕적인 이상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이다.

같은 시대를 살면서도 화담은 순수하게 자연법칙에 주목하였다. 반면에 형이상학적 자연법칙을 윤리학적 도덕법칙으로 환원시키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런 사실과 가치의 착각은 다분히 의도된 것이었다. 이른바 내성외왕(內聖外王)의 길. 조선선비들에게 지상과제처럼 받아들여진 이 도덕적 이상사회의 구현은 한편으로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하는 구조로 드러난다. 조선은 개체적 자율성에 방점을 찍는, 예컨대 불교나 도교는 말할 것도 없고, 같은 유학인 양명학, 같은 성리학인 화담철학까지도 억압하였던 것이다.

평등한 개체적 자율성

화담철학의 특징은 개체의 자율성이 존중된다는 데에 있다. 조선이라는 매우 차별적인 권력체제에서 무차별의 자율적인 개체성을 드러내었다. 이런 개체의 자율성과 평등성은 그를 불교니 도교니 하며 비난하는 근거가 되었다. 조선처럼 양반과 상놈, 적자와 서자,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정당화하는 나라에서 그의 사상은 뿌리 내리기가 쉽지 않았다. 조선의 지배권력이 퇴계 아니면 울곡의 문하에서 배출되는 이 유도 여기에 있으며, 당연히 화담철학은 환영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다.

하지만 화담 자신은 자유롭게 살았다. 또한 굳이 방외(方外)의 선비가 되지도 않았다. 그는 유학자요, 성리학자로서 일생을 마쳤다. 왕에게 예(禮)에 관한 상소문까지 올릴 정도로 방내(方內)의 질서체제에 머물렀지만 체제에 구애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었고, 자유인이었다. 진리에 몰입했고, 깨달음에 열정을 다하는 모습에는 9년 면벽의 달마(達磨)나 한쪽 팔을 자르는 혜가(慧可)가 보인다. 독단을 거부하고, 존제하는 모든 개체의 내적 자율성을 확립하는 데에서는 대승는사(大乘論師)들의 얼굴이 드러난다.

그는 지독히도 차별적인 사회에서 차별 없는 평등을 자신의 철학 속에 녹여냈고, 실천하였다. 마치 불이법문(不二法門)을 완성하고 설하는 유마거사가 환승한 듯 말이다. 화담은 천한 기생 황진이를 동등한 인격으로 대했고, 사랑했다. 그는 찾아온 사랑을 거부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빠지지도 않았다.

1577년 음력 7월 7일, 화담은 시자에게 부촉하게 하고는 연못에 나가 목욕하고 돌아와 임종하였다. 향년 57세. 임종을 앞두고 한 제자가 물었다. “선생님 지금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이에 화담이 대답하였다.

“죽고 사는 이치를 안 지 오래되었다. 내 마음은 편안하다.”

그러고 보니 비트겐슈타인의 마지막도 오버랩된다. 말기암을 앓던 그는 죽음을 예감하고 문병을 오기로 한 친구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긴다.

“멋진 인생을 살았노라고 그들에게 전해주시요.”

우리는 죽을 때 멋진 인생을 살았다고 편안히 말할 수 있을까? 오늘날 내 삶의 주인으로 살지 못하는 인생이...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는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동통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수백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기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어도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월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월빙」을 치세요.

탈 종 공 고

•법명 : 성준 (최준섭)

•주소 : 강원도 원주시 태장2동
주공아파트 206동 803호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6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인간의 길흉화복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혼들의 영향력 확인 천도법

일반적인 천도제가 아닌 내가영혼을
체험하는 확실한 영기천도법. 환자와 가족이 확인

- 1 영기장애를 상담자리에서 영기가 누구인지 확인체험
- 2 영기를 환자의 몸에서 확인가능 (6하원칙에 의한 병의 경로 확인)
- 3 인체오라장 (생명전기장측정을 통한 과학적인 병의 확인 치유과정 확인)
- 4 일반병, 정신병, 영기질환의 구분 (질병의 원인 영기장애 확인)
- 5 보라색과 파란빛, 황금빛으로 영기들이 천도되는 것을 확인
- 6 암, 당뇨, 고혈압, 중풍, 치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트라우마, 병의, 무속병, 환청, 환시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질환의 원인규명 (유전병 치료, 특이성 질환)
- 7 영기들의 수준확인
⇒ 저급영기 - 한과 집착 질병 호소
⇒ 중급영기 - 진리를 찾아 방황과 혼돈
⇒ 고급영기 - 내면의 깨달음에 대한 갈망
- 8 신앙생활과 기도를 해도 진도가 없는분
스님, 불자분, 포교원
- 9 기도명상, 만트라진언, 영언수련을 통한 자신의 영혼과 교감으로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과 삶의 가치확립, 영혼의 윤회 과정을 확실히 함

검색 유튜브강의 자각선원

네이버카페 자각선원

자각선원 (인체전기파동의학) ☎ 043)296-5258. 010-9242-5259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원봉로 93